

	인도 (뉴델리) 통상 사무소 해외 동향 보고서	작성팀	마케팅 지원팀
		담당자	하승창 소장 이영훈 대리
		일시	2022.06.20

CEPA Insight

- 인도, 2021~2022년 회계연도 기준 수출·입 금액 사상 최대치 달성
- 글로벌 철강시장 선점을 위한 인도 내 철강산업 육성의지 구체화
- 인도 정부의 다양한 수출·입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방안 모색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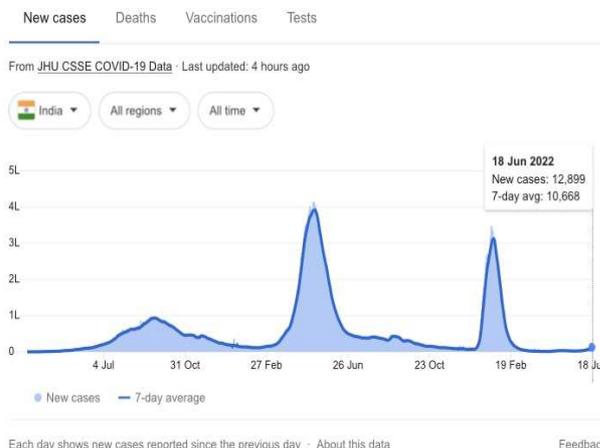
< 2022년 5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7,568,386천불	21.3%	4,388,550천불	47.3%	3,179,836천불
충남	245,770천불	182.8%	174,372천불	1,003.7%	71,398천불

※ 출처 : 한국무역통계 (<http://stat.kita.net/>)

■ 양국 간 코로나19 관련 제재 완화로 향후 비즈니스 활성화 전망

- 양국 간 해외 입국시 코로나 관련 제재 완화(출처: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)
 -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감소세로 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접종여부와 관련없이 격리 의무 해제 ※ 단,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는 유지
 - 인도는 2월 14일 부터 기존 7일 자가격리 및 8일째 PCR 음성 결과지 AirSuridha 업로드 지침 삭제, 해외입국자는 별도 자가격리 없이 입국 후 14시간 동안 자가 모니터링만 필요
 ※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 추세이나, 인도 및 한국의 코로나 관련 제재 완화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양국 간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


< 인도 코로나 발생현황 >

(출처: worldmeters.info, 2022.06.20., Ministry of Health, India, 2022.06.19)

Cumulative Vaccine Dose Coverage		
HCWs	1 st Dose	1,04,08,271
	2 nd Dose	1,00,55,706
	Precaution Dose	55,21,277
FLWs	1 st Dose	1,84,21,910
	2 nd Dose	1,76,11,167
	Precaution Dose	95,95,070
Age Group 12-14 years	1 st Dose	3,57,21,007
	2 nd Dose	2,10,22,739
	Precaution Dose	6,00,83,258
Age Group 15-18 years	1 st Dose	4,77,03,955
	2 nd Dose	55,78,82,464
	Precaution Dose	49,76,73,388
Age Group 18-44 years	1 st Dose	19,93,611
	2 nd Dose	20,33,83,554
	Precaution Dose	19,26,14,663
Age Group 45-59 years	1 st Dose	20,75,682
	2 nd Dose	12,72,03,059
	Precaution Dose	12,02,56,475
Over 60 years	1 st Dose	2,22,61,551
	2 nd Dose	4,14,47,191
	Precaution Dose	1,96,14,88,807
Total		

< 인도 연령별 백신 접종 현황 >

■ 인도, 2021~2022년 회계연도 기준 수출·입 금액 사상 최대치 달성

-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4.6%(4,219억 달러), 수입은 55.3%(6,216억 달러) 증가
- 수출의 경우,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하였으며, 석유 제품, 엔지니어링 제품, 보석류, 화학제품, 의약품 등이 호조세를 주도
 - ※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(15.3%), UAE(7.3%), 미국(7.1%), 사우디아라비아(5.6%), 이라크(5.2%), 스위스(3.8%), 홍콩(3.1%), 싱가포르(3.1%), 인도네시아(2.9%), 한국(2.8%)의 순으로 나타남(출처: weeklytrade.co.kr 2022.05.30)
- 수입의 경우, 경제 재개에 따른 비즈니스 및 소비 활동 정상화에 기인한 원유, 석탄, 금, 전자 제품, 화학물질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

■ 글로벌 철강시장 선점을 위하여 인도 내 철강산업 육성의지 구체화

- 인도 내 철강산업 내수 충족을 위하여 2047년까지 철강 생산 5억 톤 달성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품질 향상 등 '비전 2047' 발표(출처: 한국무역신문, 2022.06.07.)
- 2021년 기준 1억 1,300만 톤 철강 생산 및 1,300만 톤 수출, 최근 철광석 생산능력 유지를 위하여 수출관세 증대(30%→50%), 점결탄(2.5%→0%)과 코크스(5%→0%) 등 수입관세 조정
- 정부의 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인도 내 철강기업들이 세계 철강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쟁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※ 인도 내 철강 생산 1위 기업인 JSW는 올해 26억 달러를 설비 부분에 투자하여 2025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3,7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며, 타타스틸은 그룹 내 계열사인 타타스틸유럽의 우수한 기술력을 흡수하여 환경영향 등의 문제 개선하고자 노력 중
-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철강 기업들이 수년 내 세계 순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
 - ※ 2020년 기준 조강 생산량은 바오우(중국), 아르셀로미탈(벨기에), HBIS(중국), 사강(중국), 신일본제철(일본), 포스코(한국), 현대제철(한국)의 순으로 나타남(출처: 세계철강협회)

■ 인도 정부의 다양한 수출·입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방안 모색 필요

- 현지 수출·입 정책을 활용하여 도내 철강관련 기업들의 과감한 진출 추천
- 국제 정세와 글로벌 시장의 급변으로 수출·입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 변화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현지 대응방안 모색 필수
- 특히, 인도 내 철강시장에 대한 수입관세가 낮아지고 성장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감에 따라 도내 철강관련 기업들은 치밀한 시장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과감한 진출 결정이 필요. 끝.